

충남 적정기술협동조합의 현황과 전망

남원근

(충남적정기술협동조합연합회(준) 사무처장)

1. 충남 에너지 및 적정기술협동조합 현황

16일 현재 충남에는 199개의 협동조합이 존재한다. 이중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생산 관련 협동조합 2곳, 적정기술과 관련한 협동조합 5곳(아산2 홍성2 공주1) 등 모두 7곳의 에너지 관련 협동조합이 설립됐으며, 현재 서천에서 적정기술 협동조합 1곳이 설립 준비를 하고 있다. 아울러 적정기술과 관련한 협동조합들은 지난 7월 총회를 갖고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절차를 밟고 있다.

충남은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활동 혹은 협동조합 설립이 다른 지역에 비해 활발하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그간 이와 관련한 논의나 단체들의 활동이 대단히 풍부하지도 않았다. 서울시 등은 아파트 집집마다 소규모 태양광발전기 달기 사업을 하지만 아직 충남은 그런 수준의 활동도 크게 벌어지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관에서조차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관련한 정책의지가 강하지는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환경운동 자체는 환경운동연합이나 녹색연합이 일찍부터 활동을 해서 불모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충남의 시민사회운동 기반이 워낙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직도 환경운동 자체조차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태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까지 민간영역에서 활발히 추진한다는 점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을 쓰기 위해 확인을 해보니 지난 16일 천안지역에 한빛태양광발전협동조합이 생겨서 반가웠다. 어떤 주체들이 사업을 추진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런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이 생기는 것은 충남 입장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2. 충남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의 특징

이처럼 충남은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관련한 협동조합의 설립은 크게 활발하지 않지만, 적정기술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 충남은 적어도 광역

지자체 차원의 적정기술협동조합의 수에 있어 전국 상위에 속한다. 그러나 충남 적정기술협동조합의 수준이 전국 상위라고 자평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현재 충남적정기술협동조합들은 충남발전연구원, 푸른충남21 등의 지원과 자체적인 노력으로 계속 다양한 학습과 워크숍을 통해 전문성을 키워가는 중이다.

충남 적정기술협동조합은 작은손적정기술협동조합의 안병일 이사장, 충남적정기술협동조합연합회(준) 박승옥 회장 등 2명의 실질적인 활동가가 협동조합 설립의 흐름을 만들어냈다. 안병일 이사장은 바이오디젤 만들기 등을 시작으로 로켓스토브 등 적정기술 전 분야에 걸쳐 일찍부터 고른 활동을 하며 적정기술 보급에 앞장섰고, 박승옥 회장은 환경운동을 비롯해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을 맡아 에너지협동조합운동을 전국적으로 이끌고, 자신의 고향인 충남으로 다시 내려와 두레배움터 활동을 통해 생태단열분야를 개척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들이 시작부터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보다는 전력, 화력에 에너지의 소비 억제와 효율성 증대에 초점을 맞춰왔다는 사실이다. 이는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와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보다는 마을단위에서 같이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감 기술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즉,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서 적정기술 협동조합 활동을 해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행전략의 문제이기도 한데, 현재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놔두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것은 자칫 에너지 소비를 더욱 늘릴 수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에너지자립마을을 경우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한 이후 에너지 소비가 더욱 늘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실제로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면서 전기누진세를 줄이는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에너지운동의 본질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모습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생산보다 먼저 소비 절감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충남적정기술협동조합들은 생태단열, 비전력펌프, 소수력발전기, 코켓스토브, 화덕 등을 에너지 절감을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조합 역시 지역마다 마을을 중심으로 설립됐으며, 마을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나가겠다는 소박한 전망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적정기술의 보급과 더불어 충남주민, 더 정확하게는 마을주민들이 에너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기 일처럼 여길 때 신재생 에너지사업에 뛰어들겠다는 장기적인 전망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어떤 설비에 조합원으로서 투자를 하고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기 보다는 전체적인 충남 마을단위의 에너지 생태계를 바꾸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발제자가 밝힌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적정기술

모두 초보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관의 주도보다는 자발적인 생태계 조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3. 충남 적정기술협동조합의 전망

충남도에서도 적정기술의 보급과 확대를 위해 올해 논산 안심마을에서 생태단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더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하니 반가운 마음이다. 충남적정기술협동조합들 역시 올해 준비기를 거쳐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마을 단위의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조합별로 계속 조합원들이 늘고 있고, 기존 협동조합이 설립된 곳 외에도 적정기술협동조합을 설립할 의사를 가진 곳들이 있어 보다 협동조합의 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충남적정기술협동조합연합회는 기존 협동조합과 신규로 생길 협동조합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연합회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발제자의 발표와 같은 유럽에서의 에너지협동조합 생태계에 근접하는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화력에너지의 소비의 최대한 억제하고,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원전과 화력발전소의 수를 줄여나간다는 게 우리 조합의 전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충남도 차원의 정책의지와 충남발전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연구사업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관 주도의 사업이 아니라 마을주민이 지속가능한 참여와 실천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충남이 전국 최고의 에너지자립지자체가 되길 기대한다.